

[별첨1] 지원대상 보기

■ 공연예술 유통 및 시장개발 지원

[별첨2] 심의총평 보기

-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17년도 공연예술 유통 및 시장개발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지원 사업
- 회의일시 : 2017. 07. 20(목) 13:30~17:00 / 2017. 07. 25(화) 09:30~13:30
- 회의장소 : 예술가의집 2층 위원회 전체회의실

‘2017년도 공연예술 유통 및 시장개발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지원사업’ 관련하여, 연극, 무용, 음악 3개 분야에 총 15개 단체가 지원하여 상위점수를 얻은 1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.

심의과정에 있어 사업 공모 시 제시된 심의기준(①사업활성화-사업목적에 맞고, 해당 장르의 시장에서 성공가능한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/ ②단체역량-사업 수행단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/ ③일정관리-본 사업을 추진할 일정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/ ④재무 안정성-예산 계획이 사업 계획에 맞게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)에 따라 작성,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고, 각 단체 사업 담당자의 프레젠테이션과 이에 따른 각 심의위원의 직접 질의로 진행되었다.

위 기준 뿐만 아니라, 사업 수행 규모 대비 전체 예산 내역의 효율성, 시장 개발이 가능한 창의적 프로그램 구성 노력, 이미 타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 등 기 공지된 기준 외 본 심의위원회 고유의 기준을 제시하였다.

신청단체 중에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자막 어플리케이션 개발, 공연예술 축제 등 단일 콘텐츠를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, 본 지원사업의 특성상 동시에 복수의 콘텐츠를 제시한 단체도 있었다. 이런 경우에는 신청단체와 심의위원회 간 질의응답을 통해 그 단체에서 꼭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,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산 일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, 이를 예산 배정 시 반영하였다.

금번 신청 단체 중에는 해당 장르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 추진 중이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도 있고, 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.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업 형태를 지원해야 할지 고민했으며, 본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, 심의에 반영하였다.

각 분야별 심의위원은 본인의 전문분야 관련 의견을 타 분야 심의위원에게 충분히

전달하여 전체 장르를 함께 토의하는 종합토론에 있어 분야별 이해도와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다.

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전체 신청단체 중 상기 사업 목표와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잘 숙지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, 그간 단체의 주요활동 연혁과 역량이 동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부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청단체 중 13개 단체를 선정하였다.

반면, 해당 장르의 시장 개발 및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본 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거나,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사업비를 신청한 경우, 공공성이 취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고, 결과적으로 2개 단체는 미선정하게 되었다.

심의위원 일동은 본 심의를 마치며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.

신청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, 신청단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예술위원회,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를 바란다.

더불어 본 사업을 통해 훌륭한 공연작품이 공연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마련되기 바라며,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규 관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순수 공연예술 장르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.

2017년 공연예술 유통 및 시장개발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